



새로운 시작과 꿈꾸는 미래! 17일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35명의 발달장애인 졸업생,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기 사랑의 토요일학교' 졸업식을 가졌다. 올해로 벌써 35회째가 되는 이번 졸업식은 지난해 3월 18일 입학한 발달장애인학생과 이들의 친구이자 손과 발이 되어준 자원봉사자와 내빈 등 70여 명이 마치 신나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축제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사진=달서구청 제공)

새달 입주 앞둔 대구 아파트 수요자 외면

반고개역 푸르지오
239가구 모집에
19건 접수 그쳐...

대구에서 14개월 만에 신규 아파트가 선을 보였지만 수요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했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 무담' 대구에서 고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을 택했음에도 0%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환과를 비껴가지 못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지난 14~15일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엘리비엔'의 1:2순위(특별공급 포함) 청약 마감 결과, 239가구 모집에 19명이 참가해 경쟁률은 0.08대 1에 불과했다.

전용면적 84㎡ A(183가구)에 18개, 84㎡ B(55가구)에 1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을 뿐, 나머지 타입입 접수는 '0건'이다.

지난 13일 진행된 이 아파트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기반 추천) 청약 때도 114가구 모집에 전용면적 84㎡ A 타입 생애 최초 분야에서 1건의 청

약통장만 접수됐다.

이 아파트는 당장 오는 3월 중 입주자에 정된 후분양 단지에기에 청약 '참패'에 따른 부담은 사업 시행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인근 단지보다 높은 고분양가를 청약부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해당 단지의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기준 중 평균 분양가는 7억3900만 원(발코니 확장비 포함)으로서 6억 원대에 실거래가가 형성된 주변 단지보다 1억 원 이상 높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192만 원이 넘는다.

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인근 대구 중구 '청라힐스자이'와 '남산자이하늘채' 84㎡ 평형은 최근 5억 6700만 원과 6억7000만 원에 각각 중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가운데 1만 가구가 넘는 대구 지역 아파트 미분양도 이번 청약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245가구로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이는 전국 물량 6만2489가구의 16.3%를 차지하는 것이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12월 기준 1044가구로서 1년 전인 281가구보다 2.7배 이상 늘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 부동산 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받고자 후분양으로 선회한(사업 시행사의) 전략이 악수로 작용했다"며 "올해 처음 선보인 아파트 분양 성적이 크게 부진한 만큼 앞으로 청약 환과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단체장 일정 !



윤석준 대구 동구 청장은 19일 오후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2024 대구 여성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박현구 봉화군수는 19일 오전 봉화군 농업경영인회관 주차장에서 열리는 '2024년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 척사대회'에 참석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의료대란' 대구경북 폭풍전야

19~20일쯤 집단행동 윤곽
병원 측도 대응책 마련 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지역 대형병원에서도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기류가 일고 있다.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8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지역 6개 수련병원 중 계명대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열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됐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 돌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상급종합병원 한 관계자는 "내일(19일)이나 20일쯤 돼야 사직서를 실제로 제출한 곳이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폭풍전야와 같은 분위기라서 병원 측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며 국민에게 진료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며 범국민 행동을 독려했다.

노조가 호소한 범국민행동은 △집단 진료중단·휴진에 참가한 의사단체와 의사들에게 항의와 호소의 메시지 보내기 △집단 진료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내용 퍼내기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발표 △집단 진료중단·휴진을 막기 위한 국민총불행동이다. 황태용 기자

총선 지지 정당...국힘 42%·민주 36%·개혁신당 15%

총선 다수당...국힘 36%
민주 31% · 제3지대 18%

국민의 힘이 더불어 민주당을 제쳤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2%로 더불어민주당 36%보다 오차범위내에서 앞섰다.

개혁신당은 1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총선에서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묻은 결과 국민의힘은 '지지 의향' 42%, '지지 의향 없음' 50%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지 의향' 36%, '지지 의향 없음' 54%였다.

개혁신당은 '지지 의향' 15%, '지지 의향 없음' 73%로 나타났다.

녹색정의당은 '지지 의향' 11%, '지지 의향 없음' 77%였다.

제3지대 승리를 희망한 응답자 가운데 47%는 개혁신당을 지지 의향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민주당 28%, 녹색정의당 23%, 국민의힘 17% 순이다.

다수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36%, 민주당 31%, 제3지대 1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여당대변인권구도 따르면 36%대 49%다. 한국갤럽은 "제3지대 승리 희망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다. 따라서, 이를 전적으로 현 제3지대 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일대일 전화 면접조사(CAT)로 진행됐다.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100% 무선 전화 면접 인터뷰를 했다. 조미경 기자

한판쓸자
2월 26일(월)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배 전국아마골프대회
D-11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2



군위군, 김수환 추기경 선종 15주기 추모 참배

군위군은 지난 16일 선종 15주기를 맞아 군위읍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서 추모 참배 행사를 가졌다.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정욱 신부,

군의원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헌화와 묵념을 했다. 참배를 마친 군위군 관계자들은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을 둘러보며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환 추기경은 8남매 중 막내로 대구 외가에서 태어나, 군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신인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린 시절을 군위에서 보냈다. 박재성 기자

‘갑진년 첫 보름달’...대구 7개 구·군서 정월대보름 행사

24일 수성·서구 외 5곳 달집태우기 북구, 대구 최대 규모 3만여명 예상

갑진년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대구지역 곳곳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된다.

오는 24일 중·남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 정월대보름 관련 행사를 한다.

행사는 정월대보름 행사의 꽃인 달집태우기를 비롯한 축하공연, 체험 마당, 먹거리 마당 등으로 준비됐다.

달집태우기는 액을 쫓고 복을 부르기 위해 대보름달이 떠오를 때 나무나 짚으로 만든 달집에 불을 질러 주위를 밝히는 놀이다.

북구는 금호강 산격대교 하단 일대에서 ‘2024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를 연다.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며 3만여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달집태우기, 소원지 쓰기, 민속놀이, 포토존, 먹거리 마당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달서구는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서 ‘제17회 달배달맞이 축제’를 연다.

1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원제, 달집태우기, 체험 마당 등이 준비된다.

동구는 안심교 하부 금호강 둔지에서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음식 나눔 등을 진행한다. 각급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은 논공읍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군위군은 의흥면 둔치 일대에서 달집태우기를 포함한 정월대보름 관련 행사를 시행한다.

군위군은 효령면 월리봉 일대에서 ‘정월대보름 천신제’도 올린다. 천신제는 군위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태백산, 백두산, 팔공산 등 8대 명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됐다.

수성구와 서구는 각각 노변동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인근과 평리3동 당산목공원에서 정월대보름 관련 행사를 한다.

두 곳 모두 화재 우려로 달집태우기는 진행하지 않으며 당제, 지신밟기 등 민속신앙 중심의 활동으로 연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촛불 기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건조특보 발령 등 산불발생 위험 증가 시 관서장 산불취약지역 현장점검 △산불발생 시 지체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불 대비 진화장비 보강·점검 및 교육훈련 △산불 상황보고 및 대응태세 확립 △인명보호 최우선 산불 진화 작전 전개 등이다.

박정원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대책 추진과 신속한 조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 소통행보 강행군

9개읍·면 경로당방문 현장 민심 청취 반영

최재훈 달성군수의 소통행보가 강행군이다. 최 군수는 9개 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경

로당을 점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순회 방문은 지난 15~22일까지 관내 9개 읍면 21개소 경로당을 찾았다. 방문 첫날 15일 다사읍 하빈면 소재 경로당 4곳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애로사항 청취,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어르신들이 건의한 의견 중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검토가 필요

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향후 군정에 반영한다. 최재훈 군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뵙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생활(건강)기구 지원, 경로당 개보수 지원, 소독 및 전기안전점검 등의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공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조여은 기자

망월지 두꺼비 겨울잠에서 깨어나다

수성구, 성장 새끼두꺼비 보호 활동에 최선 총매진



망월지두꺼비가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다.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께 두꺼비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수성구 망월지에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암·수 한쌍이 포착된 상태로 발견됐다. 날이 지물면서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대규모

로 이동했다. 겨울잠을 자고 있던 두꺼비들이 봄비가 내리는 소리에 깨어나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올해 두꺼비의 대규모 이동 시기가 지난해보다 보름정도 빨랐다.

첫 출현한 날이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비가 내리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의 성체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이동한다.

부화에 성공한 새끼두꺼비들이 다시 서식지인 산을 향해 대규모로 이동하는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한다.

수성구청은 앞서 6일 두꺼비 로드킬 방지 펜스를 설치했다.

CCTV로 두꺼비 이동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망월지에서 성장한 새끼두꺼비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두꺼비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조미경 기자

경북농업...첨단기술과 융복합 구조로 대전환

농업 미래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포럼개최

경북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포럼이 지난 16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렸다.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린바이오 분야 글로벌 시장은 2020년 1조 2207억 불에서 2027년 1조 9208억 불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모내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관계자,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 그린바이오 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방안, 지역 사례에 대한 발표와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기연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과장은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농업과 식품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기존 농업 발전은 물론 관련 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영 포항테크노파크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생물, 종자, 동물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 등 6대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규제혁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례발표에서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산업 주요

소재인 헵프와 곤충에 대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산업융합프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과 농협회사법인 시그널케어의 ‘식품공촌 산업화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식품분야 인프라 확충, 시장 창출, R&D 및 인력양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지원해 나간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과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기존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 농업구조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김성용 기자

동구청,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기업경쟁력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되도록 앞장

동구청이 올해 관내 중소기업 활력 도모와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사임차비 지원사업(신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에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이다.

중소기업 기술사임차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기술사를 임차해 제공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기업의 현안 문제를 7개 분야 전문가가 상담한다.

동구청은 ‘기업에 전문가 지원사업’, 각종 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평가 수수료를 90%까지 지원하자는 ‘혁신형 벤처기업 인증취득 지원사업’,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도 시행한다. 조미경 기자

동구청, 위생행정 우수기관

동구청이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3년 구·군 위생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해 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동구청은 위생행정 인프라 확보, 음식점 등급제 관리 및 안심식당 지정 운영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외식업소의 밀키트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지원사업 추진과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으로 지역 생산제품 인지도 제고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 구민의 식생활 안전과 외식업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 큰 성과

ABB 테스트베드 실증으로 지역기업 판로 한계 극복!

대구시의 ABB 테스트베드 대구 실증지원 사업(이하 ‘ABB 실증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ABB 산업 육성과 ICT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ABB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제품 및 서비스) 실증과 검증으로 완성도를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처음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활

용, 지역기업이 보유한 ABB 솔루션에 대해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실증인사 발급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등 기술 상용화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성과 창출 기업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인 ㈜제이솔루션(대표이사 권세기)과 빅데이터·딥러닝 기반 솔루션기업인 ㈜YH데이터베이스(대표이사 최대룡)이다.

㈜제이솔루션은 ABB 기술을 접목한 ‘염색산업 단지관리공단 생산설비 고장 예지기능 고도화’를 통해 산업용 설비의 고장예측 솔루션을 확보해 향후 품질 문제 및 안전위험 발생 방지에 큰 역

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로 14명을 채용하는 등 고용에 큰 성과를 달성했다.

㈜YH데이터베이스는 ‘국태보상운동기념도서관 융합형 도서 매터버스 플랫폼 실증’을 통해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과 도서관화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역기업이 ABB 기술 고도화로 판로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업은 오는 27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공모에 참여할 기업은 대구TP 누리집(www.dgtp.or.kr) 등에서 공고 및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이강인 겨냥?...홍준표 “씩수 없으면 정리해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16일 축구 국가대표 단 불화설과 관련해 “대표 선수도 싸가지 없는 사람, 겉멋에 취해 헛발질을 일삼는 사람은 정리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홍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시장은 “정치권에서 소위 싸가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 능력 여부를 불문하고 퇴출 되듯이

축구나 스포츠계에서도 그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며 “둘다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둔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잘하고 공 잘차기에 앞서 선후배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데 잠깐 뒀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팀워크를 해친다”고 말했다.

‘반환점’ 국힘 총선 공천...현역 vs 용산 구도 현실화

윤재옥 추경호 단수 공천 주호영-정상환 한판경선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이 18일 반환점을 돌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3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단수 86·우선 3·경선 44)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24개 지역구에는 재배치 등 추가 검토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18일 야권 우세 지역인 한강·수원·낙동강벨트 등 수도권과 영남 전략 선거구는 단수·우선 추천해 후보를 조기 확정했다.

윤재옥 추경호 단수 공천

대구 달서구를(윤재옥), 대구 달성군(추경호), 부산 해운대구(주진우) 등 12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단수공천했다.

‘낙동강 벨트’ 3개 선거구에는 우선추천(전략 공천)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병, 부산 사하을·수영, 대구 수성갑

등 22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한다고 밝혔다.

단수추천 후보자는 △윤재옥 원내대표 대구 달서구를 △추경호 의원 달성군 △김도읍 의원 북구강서구를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해운대갑 △김미애 의원 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하구갑 △정동만 의원 기장군 △박정하 의원 강원 원주시갑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강원 원주시을 △유상범 의원 강원 홍성·횡성·영월·평창군 △권명호 의원 울산 동구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서울 중랑구을 등 12명이다.

서병수(부산 북구강서구갑),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조해진(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각각 전략공천됐다. 이들은 당의 협지출마 요청을 받고 지역구를 옮겼다.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접수한 여러 후보자들 중 경쟁력이 월등한 한 명을 경선 없이 본선에 내보내는 것이다. 전략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접수한 후보자들 중 한 명을 추리는 게 아니라,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서 전략적으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선 지역구 22곳

발표한 경선 지역구는 총 22개다.

현역 중에서 부산 부산진구를 이현승 의원이, 정영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맞붙고, 사하구를 조경태 의원과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하게 됐다.

금정구 백중현 의원은 김충현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

수영구 전본민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각각 맞붙는다.

대구 중남구 임병현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3자 경선을 치른다.

대구에서는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경선을 치른다.

김용환 의원·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구병),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부위원장(북구을),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서구) 등도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현역 중 울산 서범수(울주군), 경북 김정태(포항시북구),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구자근(구미시갑),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의원도 경선을 치른다.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경남 사천남해군하동군에서 이철호 전 국민의힘 중앙위 노동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등과 경선을 치른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을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지역구 재배치 논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지역구 재배치 논의는 추상적으로 생각 중이다. 19일 깊게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진우 전 비서관 단수공천에 대해서 “단수공천 요건에 해당되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수추천을 했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윤재옥, 경북현역 대거 경선행에 “지역구 관리 못한 것 아냐” 두둔

경남 현역 12명 중 7명 단수공천 받고 경북 13명 중 2명뿐



대구 3선 중진인 윤재옥(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경북 지역 현

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단수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게 된 상황을 두고

“경북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잘 못했다기보다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같이 공천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럴 경우엔 단수공천을 주기보다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를) 정리하는 게 본선거에 도움이 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런 차원에서 판단한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사에

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면접을 치른 경남·경북·대전·세종 지역에 대한 단수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현역 의원은 12명 중 무려 7명이 단수공천을 받으며 본선행을 확정지었지만, 경북 현역 단수공천은 13명 중 2명에 그쳤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단수공천에 대한 ‘현역 프리미엄’ 지적이 제기되자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한 분들은 보상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꿔 말하면 “경북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잘 못해 단수공천을 못 받은 것”이라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경북 의원들이 경남 의원들보다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고, 제 생각에 경북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성실히 하는 분들”이라고 두둔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의원들, 좋은 평가받는 의원들에게 굳이 단수공천을 안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관위에서 의논 끝에 결론내렸을 것으로 알고, 어떤 결론이든 공관위 결정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 모습.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 비위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위 제6차 회의 중인 신문, 참고인 진술 받아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15일 오전 제6차 위원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공·과장, 인사·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이유로 조사위원회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유재산 매각 수익계약 부적절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사전 절차 미이행 및 매각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자료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활동 중이다.

박희정 위원장은 “제임 여건이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상황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의의 시스템 구축과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명영 기자

안재철 중구의원 “자립 준비 청년 실질 지원하라”

중구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체계구축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 설 수 있는 비밀 언덕이 돼줬으면...



안재철(사진) 대구 중구의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실질 지원과 관심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재철 의원(나선거구)은 16일 열린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로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구에서 450명의 청년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 가정을 떠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월세 계약, 공공금 납부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부터 진로 취업을 위한 교육 활동까지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진정한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년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사회성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며 “이들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고립감과 심리적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구는 특수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식품과 기타 생필품 지원, 안부 확인 정도에 그쳐 사업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신설 및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조문이 이달 9일 시행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의 부모가 돼 청년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중구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 설 수 있는 비밀 언덕이 돼줬으면 한다”고 했다. 조미경 기자

성윤희 남구의원 “장학재단 필요”

성윤희 대구 남구의원이 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성윤희 구의원(비례대표)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꿈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길, 그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남구의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 학생의 유출을 막아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장학재단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성 구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에 걸맞게 연계할 수 있는 주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종길 달서구의원 탈당 “국힘 유명하 지지”

박종길 달서구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동시에 국민의힘 유명하 예비후보를 지지할 선언했다.

박종길 구의원(이곡1·이곡2·신당)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이는 유능하고 힘 있는 후보와 손잡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서를 함께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 구 의원은 “대구지역의 정치 구도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의원의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며 “더 소중하고 현실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고 했다.

이어 “달서구갑 국민의힘 유명하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며 “유명하 예비후보는 오늘날 실종된 의리를 지킨 보석 같은 정치인으로 지역민에게 칭송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성서산업단지 스마이트스단으로 개조하고 노후화된 성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유능하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구 의원은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달서갑 유명하 예비후보와 함께 전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8 대구지하철 “참사의 기억 지워선 안돼”

218대구지하철 화재참사2주기인 18일 정치권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날 오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218추모공원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녹색정의당 측은 추도사에서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약간의 개선은 있으나 미봉책에 그치고 참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곱씹어야 그 기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며 “추모

공원이 시민안전테마파크로, 추모탑은 ‘안전조형물’로 불리는 현실에서 기억은 왜곡되고 잊밧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에서 기억이 왜곡되고 잊밧히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과 진정성 있는 추모를 할 것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범죄와의 전쟁... 수사부서 조직개편

국정원→대공수사관 이관
안보수사 인력 17명 증원

경북경찰청이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안보수사 역량 강화 등 수사부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경북경찰청은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형사기동대 및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를 신설 후 총경급 대장을 비롯한 76명의 형사를 투입한다.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 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한다.

범죄 취약요인 분석과 불법행위 첩보 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범죄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도 수행한다.

사회기술적 발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신종범죄 및 날로 지능·전문화되는 범죄로 기존 경제팀과 사이버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한다.

지난해 경산·안동·영주에서 시범 운영한 통합

수사팀을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한다. 증가하는 전문·조직화된 경제범죄에 대응, 경북경찰청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전문인력을 증원(3명), 경북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도 더욱 강화한다.

경북경찰청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관이 이관됨에 따라 안보책임 수사기관으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증원(17명)

한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뿌리 뽑는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국가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칼색날개메이충월동합



딸기잣빛곰팡이병

아궁이 조리 화재 8억5천여만원 피해 사망 2명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아궁이 사용과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활동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3~2024년 1월까지 경북지역 내 아궁이 사용 및 음식물 조리과 관련, 총 1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127건의 아궁이 화재로 9명(사망 2, 부상 7)의 인명피해와 약 8억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30건의 음식물 조리 화재로 인해 부상자 1명의 인명피해와 약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아궁이 화재는 부주의의 11건, 미상 10건, 기타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조리 화재는 부주의의 30건으로 나타나 두 화재 모두 부주의가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궁이 화재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데 실제로 설 명절 기간인 지난 9월에는 성주군에 있는 단동주택에서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근우 경북소방본부장은 “최근 경북 도내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아궁이 사용, 음식물 조리 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젓은 비·고온, 농가 병충해 ‘비상’ ...

경북농기원, 해충 발생 빨라
농가 피해 우려 방제철저 당부

경북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올겨울 젓은 비와 따뜻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농가에 철저한 방제

를 당부했다. 올겨울은 평균기온이 2.3도 평년(0.6)보다 1.7도 높았고 강수량은 162.7mm로 평년(71.3)보다 91.4mm(228.2%) 많았다.

이상기후로 노균·탄저병,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메이충 등 주요 병해충 발생이 빠르고 발생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월동 해충은 겨울철 고온이 지속되면 부화시기가 5~10일 빨라지고 개체수도 많아진다.

최근 한 달 일조시간은 152시간으로 평년(177.6)보다 25.6시간 적어(85.6%) 시설재배 작목인 오이, 딸기, 참외 등에서 잣빛곰팡이병, 노균병 등의 발생률이 높아 철저한 관리와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월동 병해충 방제를 위해선 지난해 병해충이 많았던 재배지에는 낙엽, 과실 등 잔재물을 제거하고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발생 밀도를 줄여야 한다.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는 줄기껍질을 제거하면 각자발레, 응애 등 월동해충의 밀도를 낮출 수 있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겨울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와 많은 비로 주요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동대구농협 조합장 불법선거 재판 중요 증인 협박?

증인 B씨 결국 증언 불참...
재판방해 논란 커질 듯

대구지역 농협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현지 농협 한 간부가 주요 증인에게 증언 중단(?)을 암시하는 협박전화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동대구농협 전 임원 A씨 등에 대한 뉴시스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농협 G지점 지점장 K씨가 백 모 전 조합장의 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이름(백덕길 전 조합장의 아들)부르며 “아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관여하지 말고 가만

히 계시라. 아들을 위해 분명히 멈추시라. 사모님 태도에 달려있다. 자꾸 이카면 (아들)을 강원도로 보낼 수 있다. 강원도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고 증언 중단(?)을 암시하는 압박을 했다.

K씨는 특히 최근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호동 조합장을 거명하며, “강호동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회장)이 되는 것 봤지요”라며 중앙회 인맥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같은 K씨의 전화가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재판의 3번째 공판(지난 1월 26일)이 진행된 지 하루 전날 늦은 밤(1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에 걸려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재판의 주요 증인 중 한 사람인 B씨는 증인 출석을 저울질 하던 중 이같은 전화를 받은 후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점장 K씨의 이같은 협박(?)이 계속되자 B씨는 “(K씨에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선거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라며 오히려 K씨의 조합장 선거 관여를 지적했다.

B씨는 특히 “(K씨가) 그런 일(선거 관여)이 없다”고 하자, “(K씨를 가리키며) 사직하면 증거 자료를 내겠다”며 재차 K씨의 선거개입 증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동대구농협 전직 한 임원은 “현 조합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아들의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겁박하는 것은 재판을 방해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중대범죄가 아니다”라며 “철저한 사실 조사와 함께 현직 간부의 재판 방해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증인 B씨는 당선자인 현 조합장으로 부터 선거를 앞두고 2차례에 걸쳐 브랜드 골프 옷(시가 총 6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공판에서 이같은 증언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만간 K씨를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위증이나 교사 등 재판에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뉴시스

경북 농관원, 거짓 원산지 표시 여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일제 단속에서 나산 결과 위반업체 36곳을 적발했다.

단속은 사전 정보를 취득한 후 원산지 위반이력이 있거나 부정 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진행됐다.

농산물 도매시장 내 전담 감시원 배치로 지역 특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은 소비자 단체 회의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활용했다.

단속 취역 시간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검정 키트 사용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 방법을 사용해 단속에 나섰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확대”...대구테크노파크, 협약체결

대구테크노파크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SET)과 대경권 이공계 여성 인재 활용 확대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내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전문

성 향상과 원활한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 인재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경권역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 첨단전략산업 기업육성 및 여성 R&D(연구개발) 인력 고용창출 협력,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취업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발굴·추진을 위한 정보자원 공유, 여성과학기술인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성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된 내용이다.

대구·경북교육청 감사 기능 강화...청렴교육선포

대구, 2024 자체 감사계획 발표
경북, 감사 인력풀 40여명 구성

대구·경북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자체 감사계획을 발표하고, 경북교육청은 감사인력을 대폭 늘린다.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2024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중심 감사로 학교현장을 지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한 대구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교육청은 주요 시책사업 예산 집행 점검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 종합감사를 206개전

년대비 15개(7.9%↑)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수감기관의 업무경감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 없이 나이스, 에듀파인 등 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 재무감사를 72개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성과 감사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시설공사 무면허업체 집행, 학교 시설사용허가 및 재산관리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

올해 개통하는 더-바른(대구교육감사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기관)에서 다양한 감사사례 검색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료 입력·신청·검토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를 강화한다.

학교(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 예산 집행 전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진행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제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직동감사반을 편성 후 설계도서와 현장시공의 적합성 및 적정성, 품질-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공사비는 절감하고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힘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감사 수감기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안내하고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학부모 감사참관인제와 명예감사관제 운

영 등을 통한 열린 감사로 행정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구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부서 간 분기별 1회 정례회를 개최해 감사 기법 및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감사체계를 구축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2등급)을 달성하는 등 축적된 감사 역량을 집결해 올해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대구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이 감사 역량을 높이고자 올해 40여명으로 감사인력풀을 구성한다.

감사인력풀은 교무학사, 회계, 교육시설 분야에 4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각종 자

체 감사 수행 지원 △공직윤리와 공직기강 점검 지원 △학교 자율감사 수행 지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교육청은 감사 인력풀이 특히 전문 분야별 감사 사례를 전파해 감사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체 감사의 품질과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 인력풀은 전체 83개 수감 대상 기관 중 46개 기관의 종합감사에 참여했다.

현지 시정 포함 87건을 조치하고, 2495만 원을 회수 처분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김봉갑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전문성 있는 감사인력풀 구성으로 새로운 감사수요 증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감사역량제고와 자체 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교육부, 새학기 전국 2700여개 늘봄학교 명단 발표...

부산·전남은 100% 운영
대구 38개교 경북 152곳
대구 30.2% 경북 32.1%

교육부가 18일 전국 늘봄학교 운영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3월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발표를 종합해 1학기 늘봄학교 시행 학교의 명단을 이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제외된 경기와 경남 2개 지역의 시행 학교 명단도 취합해 오는 19일까지 명단을 모두 공개한다.

대구시의 늘봄학교 시행 학교는 70개교로 관내 전체 초등학교 232곳 중 30.2%에 불과하다.

경북도의 늘봄학교 시행 학교는 152개교로 관내 전체 초등학교 473곳 중 32.1%다.

반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해 100% 참여율을 기록했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울산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9.8%, 전북은 17.9%로 두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20~30% 참여율을 기록한 지역은 4곳(인천,

YouTube video player with title '아니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경북 '학지중' 이옵니다' and URL https://youtu.be/qFdX1ifu_y0

광주, 강원, 충남)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새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부

대구교육청, 2023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

민원처리 신속도 만점
최상 민원서비스 제공

대구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17개 지표)을 평가해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평가등급(가-마)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구교육청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항목에서는 민원처리 신속도·적정성 등의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인 가등급을 받았다.

학교 외부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집단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경찰청, 학부모단체 등과 어린이통학안전협업체를 운영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들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경북교육청, 백문이 불여일타(打)!

체험학습 장소 선정부터
학교 업무경감 일감까지

경북교육청은 2월 중으로 도 교육청 누리집 내 인공지능 플랫폼인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개편한다.

지난해 11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 생성형 AI 도입으로 문을 연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학습, 생성한다.

교직원의 행정업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 업무자료를 제공한다.

누적 이용자 수 200만 명을 넘어선 학교지원 종합자료실은 2월 발전적 개편으로 경북 체험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누구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과 주제별 코스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 지원과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답변 속도 개선과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더욱 향상된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김성용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경상북도 의성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Uiseong Education Support Office) with slogan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Life and learning become one, happy Uiseong education). Includes a photo of the building and a portrait of the director, Kim Seung-won.



대구 북구, 사업체 5만8000여곳 심층 조사

대구시 북구는 새달 12일까지 지역 내 사업체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 사업체에

대한 규모와 종사자 수 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5만8778개)다.

가정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1인 유튜버, 프리랜서 등)와 무인사업체(무인 빨래방·카페·편의점 등)도 포함된다. 항목은 사업장 대표, 조직 형태, 사업 종류, 매출액 등 9개와 대구 시 자율항목 3개 등 12개다.

▲코스피 (+72.85)	▲코스닥 (+16.04)
2,615.31	814.77
▼엔화 (-7.33)	▲유가 (+0.95)
902.35	1,591.98
▲환율 (+6.50)	▼금(-17.40)
1,338.50	2,053.70

www.dgy.co.kr

김학동 예천군수 공격적 농정으로 대전환

고품질 예천쌀, 올해 첫 수출길 미국 소비자입맛 완전 사로잡아 쌀 적정 생산 참여 쌀값 안정화

김학동 예천군수가 공격적인 농업경제를 펼친다. 쌀 적정 생산 참여로 쌀값 안정화에 앞장선다. 무엇보다 고품질 예천쌀이 미국길에 오른다.

■예천쌀 미국행

고품질 예천쌀 38t이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예천쌀은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도정·가공한 쌀로 NH농협무역을 통해 미국 수출길에 오르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에서 생산된 쌀이 품질과 맛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갑진년 새해부터 세계 최대 식품 소비시장인 미국으로 수출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군수는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농산물 판매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천농산물 수출 물량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개포면 경진리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김학동 군수, 최병욱 군의장, 진종문 NH농협무역 대표이사, 이달호(예천)·이인진(지보)·윤동훈(남예천) 농협조합장, 윤여호 예천조공대표, 수출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 쌀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해 총 1300여톤의 예천쌀을 수출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앞으로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예천군이 농산물유통망 확대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확보에 집중해 온 결과다.

예천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 품목을 만드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쌀 적정 생산 지원사업 추진

예천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식량작물 재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식물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두류, 하계 조사료, 다년생 작물 등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및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략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 두류, 옥수수)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인 경우 ha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을 지원한다.

밀·두류, 동계조사료·두류 이모작 시 ha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식물체'도 시행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전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나 휴경을 계획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ha 기준 공비축비 150~300포대의 인센티브가 있다.

2023년 벼를 재배했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3가지 사업 모두 신청 가능해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고, 개인별 공공비축비도 물량도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권운준 농정과장은 "쌀 적정 생산 지원사업은 쌀 적정 생산을 유도,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 농가소득을 늘리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병욱 기자



경주시, 안전한 외식환경 개선 적극 노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부 정기총회 지역 외식업 건전한 발전 화합 이끌어

경주시에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정기총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는 지난 15일 소노벨 경주점 그랜드볼룸에서 제30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김성학 부시장, 이철우 시의회의장, 김동해 시의원,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을 포함한 내빈과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학 경주 부시장은 "경주시 지부가 앞으로 도 지역 외식업의 건전한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음식문화 개선 유공자 표창패 수여, 지역 성적 우수 학생 장학금 전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염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최기식)는 1965년 설립됐다.

영업시설 개선과 외식업 경영지도 등은 물론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교육 훈련 등 외식업 분야에 큰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현재 지역 일반 음식점 약 3900개소가 가입돼 있다.

■청소년상담지원봉사회 정기총회

'2024 청소년상담지원봉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상담지원봉사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는 신인 회장단 선출, 신규 회원 위촉, 올해 활동계획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상담자원을 확보해 상담지원 봉사자를 양성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에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상담지원봉사자는 그간 찾아가는 집단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위기청소년 멘토링 상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 등 청소년 문제예방 및 심리·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활발한 봉사를 하고 있는 상담지원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는 상담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포항제철소, 격주 4일제 시행... 일과 삶의 균형 확대

격주마다 생기는 3일 연휴 가족들 '환영'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 향상 도움 기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난달 22일부터 새로운 격주 4일제 근무 형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격주 4일제(卍)' 선택제 근무시간제(격주 4일제)는 포스코가 기존 시행하던 '선택적 근무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무시간 선택권을 넓힌 제도다.

격주 4일제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2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격주 금요일마다 휴무다.

격주 4일제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밀도 있게 근무하고, 금요일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제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해 개인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근무시간 선택도 가능해졌다. 이는 회사측 설명이다.

포항제철소는 새로운 근무제 도입에 맞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구내식당 식사 운영시간을 1시간씩 연장한다.

제철소 차량부채 운영 시간도 새롭게 바뀐 근무시간에 맞춰 적용해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이날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Park1538 가족 초청 견학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휴무일을 이용, 가족들과 함께 Park1538을 견학할 수 있게 한다.

포항제철소는 견학을 사전 신청한 직원과 가족들이 역사박물관과 홍보관, 제철소 투어를 통해 보다 풍성한 휴무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정착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간다.

포스코는 최근 직원들이 유연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에 몰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를 활용한 원격 근무제도도 활성화했다. 근무 방식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창명 기자

대구·경북 수출·입, 중국 의존도 너무 높아

지난해 전체 수출 중국 차지 비중 대구 35.2% 경북 31.4%

대구·경북전체 수출입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성장산업인 이차전지 양극재 등 정밀화학 원료 원료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아 다양한 공급망 확보가 시급하다.

이 사실은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수출입의 대중국 의존도 분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 35.2%, 경북 31.4%다. 전국 19.7% 대비 각각 15.5%포인트, 11.7%포인트 높다.

수입 비중 또한 대구 60.8%, 경북 32.5%로 전국 22.2%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대구 수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10억 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8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달성했다.

최대 수출 및 수입국은 2022년에 이어 모두 중국이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은 4.5% 증가한 39억 달러, 수입은 2.9% 증가한 51억 달러로 대구 전체 수출입에서 각각 35.2%, 60.8%를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모두 역대 가장 높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중국 교역 의존도 또한 역대 최고치인 46.2%로, 대구 전체 교역의 절반 가까이 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의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대중국 교역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기차의 소비 문화가 후방산업인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의 대중정밀화학원료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 소재 생산 시설이 다수인 지역 관련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생산기업에서 진행 중인 핵심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핵심 자원의 사전 확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의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2.4% 감소한 411억 달러, 수입도 3.3% 감소한 209억 달러로 집계됐다.

경북 또한 중국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최대 수출 및 수입국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6.2% 감소한 129억 달러를 보인 가운데, 수입은 21.6% 증가한 68억 달러를 시현했다.

중국이 경북 전체 수출의 31.4%, 수입의 32.5%를 차지한 것이다. 전체 교역에서의 차지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31.8%로 분석됐다.

대구와 경북의 최근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은 이차전지 소재인 정밀화학원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경우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입 1위 품목으로 수출의 31.2%, 수입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2.4%, 수입의 59.8%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 또한 정밀화학원료는 전체 수출의 9.2%, 수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 63%, 수입 5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밀화학원료 등 주요 원료의 수입통계를 활용해 세부 품목별(HS Code 10단위 등) 수입 의존도를 분석해 본 결과,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이차전지의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에 사용되는 9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이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7개로 최저 96.3%에서 최대 100%까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경우에도 17개 수입품목 가운데 중국 수입 1위인 품목은 모두 9개로 최저 64.0%에서 100%까지 의존도를 보였다.

대다수 품목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희토류구자석, 희토류 등 기타 주요 원료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협 대경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대구경북의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대중국 교역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향후 전기차의 소비 문화가 후방산업인 배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의 대중정밀화학원료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협 대경지역본부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 시설이 다수인 지역 관련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미 생산기업에서 진행 중인 핵심 원료의 국산화는 물론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핵심 자원의 사전 확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소 확대

경북도가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10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와 염소 전입농에 올해부터 수의사를 동원해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그간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규모 농가(소 50

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시군 공수의 등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전염농가(돼지농가 및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는 축주가 농(축)협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을 해 왔다. 김성용 기자



MG우성새마을금고, 사랑의 줌도리 운동 실천

경주 MG우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월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준호)를 방문해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90만원 상당의 쌀 200kg 과라면 10박스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줍도리'란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을 지을 때 미리 한 술씩 덜어내 부뚜막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것으로, 전통적인 심시일반의 정신을 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임정희 우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옛 우리 어머니의 줌도리 정신을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특허 물정화기술 알리는데 행정력 집중

'물 종합 기술연찬회' 개최 2025 APEC 경주유치 지지

'2024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가 15, 16일 이틀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이날 환경부, 국내환경기법 및 학계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80개 기업이 110개의 부스를 운영, 어느 때보다 열띤 물 산업 교류의 장이 됐다. 경주시는 유일하게 물정화 특허기술 및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보유 중인 지자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경주시는 국제적인 물 산업의 변화에 부응, 자체 물정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선진 환경기술 개발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콜롬비아 디볼라시에 GJ-R장치를 설치, 마을주민 110여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등 해외 물부족 해결과 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찬회 첫 날 15일 개회식과 함께 맑은물 공급에 힘쓴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시상, 환경 분야별 신기술 사례발표, 우수기재제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16일에는 연찬회 참가자 대상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수질연구시설 등 선진지 견학과 불국사 등 역사문화탐방을 했다. 시는 연찬회에서 '물 정화 기술 홍보관'을 운영, 경주시의 특허 물정화기술을 알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경주시 물정화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금호건설, ㈜MBT, ㈜삼우ENG 등 기업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 GJ-R,

GK-SBR 기술을 소개, 구매상담을 했다. 시는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품은 세계문화유산 도시이자 원자력, 전기자동차산업 등 최첨단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경주가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만 물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공람

경주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 작업을 위한 사전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4월 7일까지 월성1호기 해체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을 진행한다. 공람장소는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를 비롯해 갑포·외동읍, 문무대왕·양남·내남·천북면, 월성·불국·보덕동 각 행정복지센터 등 총 10곳이다. 지역 주민들의 해체사업 이해를 돕고자 갑포읍(220), 문무대왕면(221), 양남면(222), 청소년수련관(35)에서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해 지난 2019년 12월 영구정지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해체계획서에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보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돼 있다. 경주시는 주민공람이 완료되면 주민의견수렴내용을 한수원에 전달하고 한수원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해체계획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황오동 건강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경주시보건소가 황촌마을활력소에서 '황오동 건강마을 조성사업 신규선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열린 이번 설명회는 황오동 건강마을을 해당 12개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간호대학 한영란 교수를 초빙해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취지 및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이해도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 특화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김성학 경주 부시장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안전한 외식환경 개선 적극 노력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정기총회 지역 외식업 건전한 발전 화합 이끌어

경주시에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정기총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는 지난 15일 소노벨 경주점 그랜드볼룸에서 제30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김성학 부시장, 이철우 시의회의장, 김동해 시의원,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을 포함한 내빈과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학 경주 부시장은 "경주시 지부가 앞으로 도 지역 외식업의 건전한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음식문화개선 유공자 표창패 수여, 지역성적우수 학생 장학금 전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임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지부장 최기식)는 1965년 설립됐다. 영업시설 개선과 외식업 경영지도 등은 물론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 위생교육 훈련 등 외식업 분야에 큰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현재 지역 일반 음식점 약 3900개소가 가입돼 있다. **■청소년상담자원봉사회 정기총회** '2024 청소년상담자원봉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청소년상담자원봉사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는 신입 회장단 선출, 신규 회원 위

촉, 올해 활동계획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상담자원을 확보해 상담자원 봉사자를 양성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에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는 그간 찾아가는 집단상담, 학교폭력예방교육, 위기청소년 멘토링 상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위한 아웃리치 활동 등 청소년 문제예방 및 심리·정서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을 위해 활발한 봉사를 하고 있는 상담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는 상담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경주시 인구정책 한 번에 확인

경주시가 '2024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 19일 발간예정인 이 안내서는 경주시가 시행중인 138개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분야별로는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임대·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이다. 시는 이 안내서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시청민원실, 도서관을 비롯, 지역 병원 등에도 배포한다. 경주시 누리집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 QR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시행 중인 다양한 인구정책을 보기 쉽게 정리해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발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유용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영덕군,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후 복지서비스

영덕군은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어르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관내 고물상을 방문해 폐지 수입 노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가정 방문 후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조사한다.

또 읍·면 복지 인적자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등)을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 가정을 찾아 생활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로 파악된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연계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파악된 노인에게 대해 위기가구 데이터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현황과 복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와 일자리사업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배부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및 사전 방제를 위해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4회차분의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배부한다.

방제약제는 농약 공급업체를 통해 3월 중순까지 농가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4종의 방제약제뿐만 아니라 방제체계가 안내된 리플릿을 함께 배부해 농민들이 약제 방제 시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에서는 리플릿을 참고해 반드시 적기에 방제하고 방제확인서와 사용한 약제 봉지(농약병)를 1년간 보관해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감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에서 발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으로 적기 방제, 사전예찰 및 현장 지도 등으로 과수화상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는 만큼 배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여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2024년 환경분야 추진계획 발표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주민 행복해지는 미래환경 구현

청송군은 2024년 환경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군은 더 나은 미래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 더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군은 2024년 환경 분야의 군정 추진방향을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주민이 행복해지는 미래환경 구현"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존

청송군의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질병확산방지 사업 등에 58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도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직교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로드킬 감소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틀 마련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군정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해 탄소감축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기기(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지역 대기환경정보를 상시로 나타내는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와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 1개소를 설치한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에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 환경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위탁 적기처리로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선다.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촉진과 배출 장소 개선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할 예정이고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지방상수도 시설확충공사(총사업비 420억·예정), 안덕(현사)·부남상수도 시설확충공사(총사업비 253억) 및 정비사업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차(청송읍·진보면: 사업비 280억),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주왕산·부남·안덕·현동·현서면: 200억), 청송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구축사업(사업비 143억)]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2023년에 준공된 청송상수도 시설확충사

업(사업비 398억)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880세대 1792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했다.

연이어 추진하는 안덕(현사)·부남상수도 시설확충공사 또한 2023년에 순조롭게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의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

아울러 진보상수도 시설확충공사(420억)는 진보정수장 내구연한 증가로 인한 시설개량 및 선진화를 통해 용수용량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우리군 지방상수도 공급 구역 편입은 향후 여차교도소 유치 등 관련사업 유치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보급율 77.3%에서 86.1%로 향상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 입증된 사업을 연이어 청송군 전역으로 확대·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군은 미처리 소규모하수처리구역인 파천면 신기리, 안덕면 신성리, 주왕산면 상평리·지리에 총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현재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17.5km, 배수설비 444가구 등 본격적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덕면 감은리, 성재리 일원 총사업비 89억원을 들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갈 전략이다.

아울러 '산소카페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각적인 환경관련 사업과 폐기물 적정처리를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맑은 물 공급과 적극적인 하수처리로 최상의 물 불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머물고 싶은 '산소카페 청송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아쉬운 작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송 출국송별식 가져

청도군은 지난 16일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국 송별식을 가졌다.

군은 필리핀 카빈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중 34명이 5개월간의 가을철 농번기 작업을 마치고 건강하게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날 송별식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의장 및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고용농가 및 계절근로자 90여 명이 함께 참석해 부족한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로하고 환송했다.

청도군은 작년 MOU를 체결한 필리핀 카빈터시로부터 8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도입했다.

이들은 청도군내 딸기, 감, 미나리, 버섯 등의 재배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로했다.

근로기간 동안 군의 지속적인 근로현장 점검과 고용농가 교육을 통해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모두 무사히 근로를 마쳤다.

향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입국 추천확인서를 발급해 근로자들 상당수가 하반기에 재입국해 청도군 관내 농가에 다시 한번 일손을 돕게 된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3개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47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2월 19일부터 기존에 근무하던 고용농가와 신규농가에 배치돼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이어 나게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도입해 청도군 농촌인력 해소에 큰 힘이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인구감소 대응,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 기대



영덕군은 지난 14일 경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영덕군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북도개발공사는 서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영 영덕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찾아가는 지역민원처리반 운영

청송군은 찾아가는 지역민원처리반(이하 민원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처리반은 매년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오지 마을을 방문해 지역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찾아가는 지역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파천면 여천1리 경로당을 방문한 다해 주민들과 상담했다.

민원처리반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등의 민원을 원활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해 군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운영된다.

지난해 총 13개 마을을 방문해 토지이동(75건 84필지), 지적상담(18건 22필지) 등 총 93건 106필지의 민원을 현장접수 처리했다.

앞으로는 경로당·마을회관 이외에도 전통시장·청송사과축제장 등과 같이 주민들이 군집하는 곳을 방문하여 지역민원 현장처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별 방문계획은 군청 홈페이지, 반상회보와 스마트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54-870-6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문 기자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19일 오전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사)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19일 오전 고령군청 우육실에서 열리는 고령군이장연합회 취임식에 참석한다.



고령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 모집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시설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참여의식을 확대해 보다 나은 청소년전용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지난 15일부터 3월 10일까지다.

모집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4세(중1) ~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고령군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QR코드 접속 지원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 대가야문화누리3층)하면 된다.

청소년운영위원은 매월 1회 정기회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 사업, 운영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 실제로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활동이다.

배영백 기자



의성군 안계미술관 공예주간 공모 선정

의성군 안계미술관이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26개의 프로그램이 접수됐으며 안계미술관을 비롯해 총 14개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예주간'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문화 축제로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안계미술관은 '도약하는 손길, 창조하는 마' 공예 도약을 주제로 오는 5월 안계미술관, 안계행복플랫폼 일대에서 △공예작품 전시 △공예마켓 △공예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박채성 기자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8월 착공

적서동·문수면에 2027년 준공
4700여명 직·간접 고용 창출
연간 760억원 유발효과 기대

영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제2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은 총사업비 2964억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5971㎡(약 3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총 16개 업종 유치

베어링(전·후방 포함), 기계, 경량 소재 등 총 16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지역내 고용 창출, 인구증가,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은 영주시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주력 사업의 하나다.

2018년 국가산업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10월 지방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통과, 2021년 3월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4월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과 지난해 8월 국토부 최종 승인까지 지역 안팎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국가산업단의 성공과 빠른 조성을 위해 현 5월 협의 보상을 시작으로 8월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 기업 유치 위한 산학연관 협력 인프라 구축

국가산업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한 만큼, 하드웨어 건설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영주에는 2018년 준공된 국내 유일의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테크베어링시험센터와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등 이미 입주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2025년까지 베어링제조기술센터와 경량소재표면처리기술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국내 최대의 베어링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동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기계공학과'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재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학적 기초 지식, 3차원 설계, 기계 제작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시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 유망기업 유치가 달려있다는 판단하에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全)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의 입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영주, 제2의 전성기로 도약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700여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해 1만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라며, "영주는 물론 대한민국 부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굳은 각오를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영주시가 앞으로 소재부품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봉화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투자사업 중점 관리사항 등 논의

봉화군은 지난 16일 본청 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목표, 집행률 제고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 관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상반기 집행의 최대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선순환과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점정책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은 정부시책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부응하고자 행정사전절차의 적극적인 이행과 행정인전부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집행 추진단(단장 부군수)을 구성해 대규모 시설행을 중점 관리하는 등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군의 경제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계획한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성기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나눔의 파발마운동 발대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4년 나눔의 파발마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나눔의 파발마 운동은 참가 봉사단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활동 종료 후 다음 단계에 나눔의 파발마기를 전달하는 릴레이 방식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영천시의 대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나눔의 파발마 운동은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17번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24년에는 두드림봉사단과 성문대학교 아이엔젤봉사단을 시작으로 24개의 봉사단체가 문화예술공연활동, 환경정화활동, 연탄나눔 봉사활동,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역사회 곳곳에 행복을 전파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한다"라며 "나눔의 기쁨 전달할 때마다 희망도 두 배가 되어 영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관광협의회의, 대가야축제 관광아카데미

(사)고령군관광협의회는 지난 16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관내 서비스업 및 축제 관련 종사자, 고령군관광협의회 회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문화관광축제 전문가이자 관광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변정우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셔 관광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발전전략 모색,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고령 대가야축제의

발전전략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용현 (사)고령군관광협의회장은 "변화하는 관광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개선해야 할 방향제시와 글로벌 축제(명예관광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의미 변화는 교육뿐이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강의해 주신 변정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고령 대가야축제는 오는 3월 29일 개막한다. 배영백 기자

올해 영천한약축제 준비 본격 돌입 대표행사로 작약꽃 체험 연계 기획

5월 17일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

영천시는 지난 15일 '제22회 영천한약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한약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약축제위원회 위원들과 영천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영천한약축제의 추진방향과 발전방안, 안전대책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한약축제위원회는 올해 한약축제를 작약꽃 개화시기인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영천한약마을 일원에서 개최를 결정했으며,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과 작약꽃 체험행사를 연계한 행사를 기획하고 MZ세대 등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한방체험과 한방먹거리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영천시민과 관

객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축제는 명실상부 한방도시 영천 홍보를 통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한약제 전시와 방문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약제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방 관련 이벤트를 준비한다.

작약꽃 체험행사를 동시 진행해 한약축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작약꽃의 개화 모습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시중만 한약축제위원장은 "금년 한약축제는 전년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봄날의 화사한 날씨와 함께 한방 냄새 가득한 영천을 보여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22회 개최를 맞이하는 한약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체험, 다채로운 축제로 준비해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축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의성군-한국손해평가사협회 업무협약

농업 재해 대응능력 강화 나서



의성군은 지난 16일 농업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와 두 손을 맞잡았다.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농업 분야 재

해 대응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고자 김주수의 성군수와 박연수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농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국민 교육 지원 △손해평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으로 의성군과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는 농업인 재해보험 교육과 손해평가사 전문능력 배양 교육 협동 등 상호 협력하며 이를 통해 농업 재해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한국손해평가사협회와 협약으로 농업인들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 교육을 받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채성 기자

포항시, 감사담당관에 전직 비위 경찰 선임 '논란'



문화재청, 성주 한계마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

문화재청이 지난 14일 성주군 소재의 국가민속유산인 '성주 한계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마을 구석구석을 주민들과 함께 돌아보며 가족의 상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마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저잣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장 설명을 통해 문화재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업중인 성주 한계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은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관광센터, 주차, 주차장 등)을 개선하여 탐방객들의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 방문을 유도한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좋은 경험을 제공하고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또한 마을의 유희공간 등을 재해석하고 배치하여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바쁘신 가운데 한계 마을을 찾아주신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드린다. 전국 8개 민속마을 중 하나인 한계마을의 가치를 되살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지역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세훈 기자



구미시·풀무원푸드머스 손잡고 농산물 판로확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북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인 풀무원푸드머스(대표 전영훈)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지역 영유아 시설에 구미 쌀 공급을 시작으로 지역 농산물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은 협약서에 ▲지역 영유아 시설 로컬푸드 유통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정보 교류 ▲영유아 대상 올바른 식생활 확립과 건강 부문 증진 활성화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미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인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 농산물 판로가 확대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 금오산점을 운영하고 있다.

구미 농산물 제품의 브랜딩, 판로 개척 등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은진 기자

제대로 된 검증 의구심이 일어 압수수색, 직원 갑질로 좌천

포항시 신입 감사담당관에 비위 혐의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황태일 전 포항북부경찰서 경무과장을 선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 감사담당관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이날 황 전 과장을 최종 선임했다.

울진군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울진군은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의 시름을 덜어준다.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정책보험 상품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기본 70%부터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이로서 각종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한다.

특히 울진군은 최대 지원 범위인 92%까지 지원하며 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의 시설이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NH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민간보험 7개사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안전재단과, 읍·면사무소 및 각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각종 자연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재난 대비와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원인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하지만 황 전 과장은 지난 2019년 하반기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투서가 접수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황 전 과장은 3급 경찰서인 영덕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문책성 좌천 인사라고 동료 경찰들은 귀띔했다.

더욱이 황 전 과장은 영덕경찰서 근무 당시인 2020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본청 감찰관으로부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당했고 이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담당관은 부패 방지, 비위 예방 대책

수립 등 시 전반에 걸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시 공무원들은 갑질과 비리 혐의로 감찰(감사)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경찰관을 시 감사담당관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공무원이 죄인(피고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선임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친 인사인지의 구심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가 황 전 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선임한 데 대해 경찰 출신인 이강덕 시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 전 과장은 이강덕 시장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치안비서관 근무 당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조만간 황 전 과장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비위 등 특이 사항이 없으면 오는 3월 임용할 예정이다.

의명을 요구하는 한 경찰관은 "황 전 과장이 재직 당시 각종 비리와 갑질 등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이 한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태일 전 과장은 "징계는 품위 유지 위반 또는 성실 의무 위반 정도"라며 "내 성격이 조금 강하다. 그래서 직원이 잘못된 부분을 따졌는데 갑질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정창명 기자



후지사과 가지치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꽃눈 분화율"

후지 꽃눈 분화율 평년보다 7% 낮아

'후지(일명 부사)' 사과 가지치기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

18일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 조사 결과 '홍로' 꽃눈 분화율은 75%로 평년보다 7% 높았다.

반면 '후지' 꽃눈 분화율은 54%로 평년 대비 7% 낮게 나타났다.

특히 홍로 꽃눈 분화율은 과수원에 따라

66~88% 수준이었지만 후지 꽃눈 분화율은 26~73%로 편차가 매우 컸다.

꽃눈 분화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수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지치기할 때 열매가지를 많이 남겨야 한다.

60~65% 정도일 경우 평년 수준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지난해 잦은 강우로 인한 병 피해로 잎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졌거나 늦게까지 내린 강우에 질소흡수로 인해 저장양분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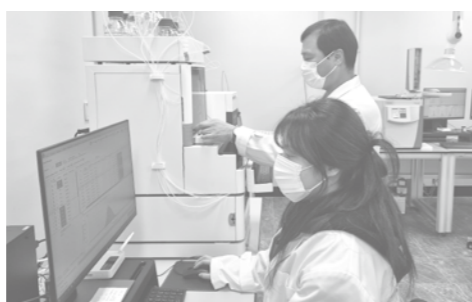
꽃눈 분화율 판단 방법은 생장이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 동서남북 방향에서 성인 눈높이에 있는 열매가지 꽃눈을 50~100개 정도 채취한 후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이등분해 확인하면 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후지 가지치기 작업 시 반드시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뒤 작업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후지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다. 숙기가 10월 하순~11월 상순인 만생종이다. 최준길 기자

상주시,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본격 시행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463종 정밀분석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1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역 농산물의 잔류농약 463종 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농산물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시행됐다.

2022년에는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성분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농산

물안전성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질량분석기 등 30종의 분석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463종을 분석한 후 허용기준에 따른 적합 유무를 판정하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인증, 공공급식 유통 농산물 시료를 검사하고 수확·출하 시기, 농약사용량을 조절해 지역 안전먹거리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잔류농약 분석은 상주시에 주수지와 농지를 둔 농업인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작물 1~3kg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14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정현 미래농업과장은 "PLS 등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 판정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농약 안전사용 지도와 교육을, 소비자에게는 안전먹거리 제공을 통해 상주시의 건강한 지역농산물 유통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현 손국선 회장 연임

정기총회 열고 재선에 성공 26년까지 문경시협의회 이끈다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지난 16일 드림스타트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박영서 도의회 수석부의장 등 내빈들과 바르게살기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12명의 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와 무한전정 문경시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친절퍼포먼스를 펼쳤다.

회장 선거에는 손국선 회장이 재선에 당선돼 2026년까지 바르게살기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문경시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손국선 회장은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분들과 함께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펼치겠다"라면서 "친절하고 살기좋은 문경, 희망이 넘치는 행복 문경 건설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취약계층과 주변 이웃을 보살피는 등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손국선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화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는 단채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무한전정 명품도시 문경 만들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칠곡군, 노후 경유 자동차 ·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칠곡군은 2024년 노후 경유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액은 총 28억 원이다.

신청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

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읽지 않은 경우 SMS 문자로 발송한다.

신청조건은 접수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조기 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자체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제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다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웅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인구부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가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은 되어야 하는 합계출산율이 0.72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0.7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나라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가 다투어 발표하고 있는 총선 공약에서 부총리급 인구부(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앞세우고 있으니 딱히 짝이 없다. 아이디어가 빈곤할 때 내놓는 전가의 보도가 전담 조직 신설과 격상인 것은 알지만, 새로 정부 조직을 만들 때 피할 수 없는 마찰적 전력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한가한 발상이다.

신설 조직이 단시간에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이미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사실상 수장인 부위원장이 장관급이라 격으로 보면 그 이상 높을 수가 없지만 이 재앙을 막지 못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불감당의 과제를 두 개나 안고 있어서 제 코가 석자다. 저출생 문제 담당 조직에 강력한, 독립된 재정권을 주자는 것도 예산, 세제 등 재정 기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현실적 발상이다. 한 나라가 한 해에 쓸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을 추정하고, 그중 얼마를 재정 지출과 세제 감면 등의 수단으로 정부가 쓰고 민간에게는 얼마를 남겨 줄까를 결정해야 하며, 어디에 얼마를 더 쓸 것인가는 어디에 얼마나 덜 쓸 것인가와 동시에

결정해야 하므로 재정의 기능은 나눌 수가 없다. 더구나 저출생 문제 해결에는 일자리, 주택, 교육, 보육, 나아가서는 생계비 안정 등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정책 수단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당장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원 가능한 자원을 영끌까지 해서 파악하고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게 해야 한다.

이 재원을 여러 부처의 수많은 사업으로 쪼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하나하나 신청해서 받으려면 성가시게 짝이 없게 만들지 말고 "신생아 1인당 1억원 지원" 식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현재 신생아 25만명을 기준으로 25조 원만 있으면 된다! 목돈으로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출산,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때그때 지불하는 방식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10년에 나누어 쓴다고 가정하면 우선 내년에는 2.5조 원이면 된다. 20년에 걸쳐 2억 원을 제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양당이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씩 대출을 해 주고,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셋째를 낳으면 원금 50%, 100%를 탕감해 주자는 제법 괜찮아 보이는 안을 내놓았는데, 둘째, 셋째를 낳아야 제대로 지원되는 이런 방식은 일단 첫째를 낳아 키워 보면 둘째, 셋째를 낳을 결심을 쉽게 된다고 하는 다둥이 부모들의 경험담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다. 재원 확보 방안은 간단하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다 끌어모으고, 근년에 터무니없이 늘어난 공무원 인건비나 노인 복지 예산 등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내고, 민자 유치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민자로 돌리면 된다.

달빛고속전철, GTX 연장·신설, 도심 철도 지하화, 그 무엇이라도 민자 유치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고 기존의 투자 예산을 최대한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돌리면 된다. 출생을 회복 이상의 절박한 투자가 어디 있었는가?

출생률 저하를 막고 다시 높인다고 해도 2.1을 넘길 때까지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인력 부족, 내수 부족으로 경제는 위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민청은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인구 보충, 그것도 가족(내수)을 동반하는 고급 인력의 유치를 진력해야 한다. 이 역시 이민청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유입 이민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인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만들고, 좋은 취업, 사업 환경으로 그 사람들을 미국에 머물러 살게 만들었으니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민청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도 가족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귀화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혼자 와서 제한된 기간만 있다가 가고 해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번 돈을 모두 본국에 송금하게 만들어 내수 위축의 원인이 된다. 이런 외국 인력 확보 방안들 역시 이민청 혼자 감당 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기재부의 기획하에 전 부처가 톱풀 뭉쳐서 실행해야 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야 가능한 일이다.

나의제언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주세요



조정수

예천소방서 소방사

희망찬 새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갑진년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떤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 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에서의 화재는 화재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커 각

별한 경계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근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도 알아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2월 예천 관내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고를 막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보듯이 화재 초기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천소방서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중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으로 『가야호 재난지킴이』를 시행해,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를 해주고 있으며 관내 대형 전광판과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힘쓰고 있다.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 다라는 말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과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모님과 친자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전을 나누길 바란다.

오늘의 정치 논평

긴급수술 치료 필요한 국민 간접합 외면해선 안돼



윤희석
국민의힘 선입대변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효율적,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정부와 국민은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부조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의료체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의 사회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 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의료계가 지금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해 왔던 것처럼 이웃의 '건강'과 동료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닌 환자의 곁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



권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은 윤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알앤디(R&D) 예산 삭감'에 항의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논란 확산을 의식해 '소란행위 분리', '불가피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민심의 분노는 들끓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로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박질하게 대하기 어렵다', '아쉽다'라는 궤변으로 국민 혈압상승의 '일등 공신'이 됐습니다.

국민께서는 이미 민족의 자존심까지 벗어던진 '굴욕의 교'와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로 국격을 추락시킨 윤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입에 질세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마저 국내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말로 비판을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입틀막'의 대상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노인비하', '여성비하', '극우 논란' 등을 일삼았던 여권 인사들임을 명심하십시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반드시 천년고도 경주에!!

꿈나무야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50만원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참가규모 88팀(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월 20일(입금자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행사장소** : 경주더케어 호텔 2층 거문고실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탤런트 이영범 가수 소명 탤런트 최용준



가수 백봉기 가수 신비 가수 골드

대구
광역시
일보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우승 존바이런 남성 풀세트
- 여자우승 존바이런 여성 풀세트
- 남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시상내역

- 여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남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니어 존바이런퍼터
- 여자 니어 존바이런퍼터